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11/13 (주일)	11/14 (월)	11/15 (화)	11/16 (수)	11/17 (목)	11/18 (금)	11/19 (토)
행 17-18	행 19-20	행 21-23	행 24-26	행 27-28	갈 1-3	갈 4-살전 2

"비전을 따라 가는 삶"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로마에 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 19:21, 롬 15:22-25).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고, 거기서 2년이나 구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암살 위협, 폭풍과 파선 등 그 어느 것도 그가 로마로 가는 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스아이엘(SIL, 1936),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회 (1941), 잘스(JAARS, 1948) 등을 차례로 설립한 카메룬 타운젠트 역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허망한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타운젠트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나면 그걸 이뤄 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민감하게 기다렸다가, 열렸을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1926년부터 선교를 위한 비행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고, 1929년 칵치켈 신약성경 번역을 마친 다음부터 그 꿈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도 성경 번역 사역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사람도 재원도 없었고, 심지어는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시기까지 2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한번은 비행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사고를 안전한 비행 사역의 필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고 현장을 담게 한 것입니다. 1948년 페루에서 잘스(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사역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왝소 시로 그 본부를 옮겼습니다.

타운젠트의 뒤를 이은 잘스 지도자들도 그와 같이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섬기고 있는 잘스의 비행기들과 선박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DC-3 수송기를 얻었을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잘스가 이 비행기를 직접 기증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비행기를 주셨습니다. 만일 직접 기증 받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페루에서의 사역에 맞게 이 비행기를 개조할 수 있는 비용까지 모금 운동을 통해 거둬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무모하다며 반대했던) 잘스 이사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p. 47, 10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p. ….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 p. Dfdlfkjdfl)

오늘도 이런 운송수단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잘스와 함께 행동하며 기도합시다. (http://www.jaars.org)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Pursuing God's Vision"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eun Kim

St. Paul was a visionary who waited for God's moments with patience and threw himself into God-given opportunities no matter what the cost. He even used his privileges as a Roman citizen to be chained and transported to Rome as a prisoner. He revealed his intentions to go to Rome when he left for Jerusalem from Corinth at the end of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Acts 19;21, Romans 15:22-25). He was arrested in Jerusalem and escorted to Caesarea where he was detained for over two years. Arrests, threats of assassination, storms, and shipwrecks, … nothing could deter his visionary march to Rome!

Cameron Townsend, founder of the SIL (1936), Wycliffe Bible Translators (1941), and JAARS (1948), was a visionary as well. He marched against impossibilities never saying can't'. But he was also able to "discern between a wild idea and a vision from God."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Sun, Nov 13	Mon, Nov 14	Tue, Nov 15	Wed, Nov 16	Thu, Nov 17	Fri, Nov 18	Sat, Nov 19
Act 17-18	Act 19-20	Act 21-23	Act 24-26	Act 27-28	Gal 1-3	Gal 4-1Th 2

> One of the Cameron Townsend's secrets of answered prayer was patience. Once a prayer was prayed, he left it alone. He didn't rush out and try to bring it to pass. He believed that if a thing was of God, God would open the doors. His job is to be quick and alert to sense when the door swung open, and to step inside before it closed again.

Uncle Cam kept this vision of a missionary aviation program from1926 and began to share it with others in 1929 after he finished the Cakchiqel New Testament translation. He believed that would make Bible translation works possible even in the Amazonian area. No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available at that time and there was the great depression going on in the US. But he waited over 20 years to see God make his dream come true.

When his leg was broken and he was bleeding from a plane crash, even at that moment he thought of using this tragedy to promote a safe aviation program. He asked to bring a camera to take the crash scene and share the need for an aviation program, after he made it sure his wife and their daughter were safe. JAARS ministries started in Peru in 1948 and they moved to the present base in Waxhaw, North Carolina in 1968.

The succeeding leaders of JAARS inherited the same visionary mindset and kept asking God and knocking on doors until they were opened by God's grace. That is how all the other planes and ships were given to JAARS. They are now being used to serve the local peoples and missionaries in remote areas where access without transportation services is impossible.

It was God's miracle again for JAARS to have the DC-3 transportation plane through many difficulties.

> The Lord had indeed had a better way than JAARS receiving the plane as an outright donation. Had it been given to them all those people would not have gotten involved as interested prayer partners. Not only that, but additional money to condition the plane to send it to South America had been provided through the drive. And besides, the JAARS board of directors has seen the result of faith in action.
>
> (p. 47, 10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Let us pray with JAARS in action as they pray for those vehicles today as well. (http://www.jaars.org.)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